

자료 2024-01-19 / SINCE 1990~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주택담보 대출 인프라 서비스 시행에 발맞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광주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들이 기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광주은행 모바일 앱인 ‘광주Wa뱅크’에서 비대면으로 손쉽게 광주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KJB모바일아파트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동 시스템이다.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플랫폼과의 제휴를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 KJ카드, ‘설레는 날 광주카드가 쏜다’ 이벤트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KJ카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4일까지 ‘설레는 날 광주카드가 쏜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응모가 필수이며,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프로맥스 ▲GS칼텍스 모바일쿠폰(2만원) ▲신세계 모바일쿠폰(2만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을 제공하고 이벤트 간의 중복추첨이 가능

하다.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은 “2024년에는 고객님들과 더욱 풍성한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신세계

### ◆ 매출 향상·소비자 유입 두 마리 토끼 잡았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들을 적극 유치하면서 매출 향상과 신규 소비자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 이동훈 대표는 “광주신세계가 광주전남 최초로 선보인 마헵킴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도적으로 유치해 매출 향상과 신규 고객 유입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소비자 만족을 높이고자 프로

모션 활성화와 새로운 브랜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금호타이어

### ◆ 교통안전공단과 '교통사고 예방' 전략적 제휴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결합 타이어 조기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공단 소속 전국 59개 검사소에서 시행한 자동차 검사에서 타이어 상태 미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객에게 타이어 점검 서비스와 제품 할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병석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고객들이 공단을 통해 차량뿐만 아니라 타이어에 대한 정보를 얻고, 타이어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아오토랜드광주

### ◆ 지난해 역대 최대 생산 달성



지난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생산한 차종 가운데 가장 많이 생산된 차량은 스포티지로 20만5230대를 기록했다.

4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이 공장은 2023년 연간 내수 18만7968대, 수출 35만3132대 등 총 54만1100대를 생산해 설립 이래 최대 생산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문재웅 공장장은 “지난해 고객의 사랑과 임직원의 노고가 합쳐져 역대 연간 최대 생산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었다”며 “올해는 지난해 기록을 밑거름 삼아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 디에이치글로벌

### ◆ 이정권 대표,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



디에이치 글로벌 이정권 대표가 부안군에 500만원을 기탁하며 2년 연속 제1호 고향사랑 고액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부안군 상서면 출신인 이정권 대표는 타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 중이며 평소 부안 군정에 관심이 많아 지난 2016년부터 근농 장학 재단에 2016만원의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매년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예외 없이 2024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정권 대표는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환경을 위해 ‘지구방위대’가 되겠다는 부안군이 내 고향이어서 행복하고 고향에 기부한다는 것이 큰 기쁨이자 그 자체가 보상”이라고 말했다.



## 보해양조

### ◆ 소주에 이어 설 전 '과실주'도 출고가 5.3%↓



보해양조는(대표 임지선) 지난달 22일 앞새주 등 소주 제품군 가격을 내린데 이어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 과실주 제품군의 출고기도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지난 연말 소주 제품군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과실주 또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반영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했

다”고 전했다.

## 전남대학교 병원

### ◆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안영근 전남대학교 병원장(순환기내과 교수)이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교수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으로 선임된 건 안 병원장이 최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지난 1997년 창립 이후 26년간 심혈관질환의 중재적 치료,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학회로 인정받고 있다.

안영근 병원장은 “심혈관중재술은 심혈관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이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그 자체”라며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학회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별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학회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 한전KPS

### ◆ 국민 소통 노력' 정보공개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 (사장 김홍연)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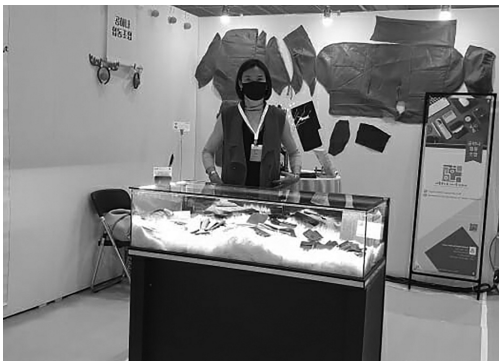
행안부는 매년 550여개 정부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며,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에서 한전KPS는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운영' 등 4개 평가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결과로 한전KPS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전KDN

### ◆ 함께일하는재단, 마을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 완료



한전KDN(대표 김장현)과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이세중)은 마을기업의 경영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개한 ‘마을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마을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한전KDN과 함께일하는재단이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 마을기업 10곳을 선발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IT기기나 솔루션을 지원했다.

김장현 한전KDN 대표는 “한전KDN은 다년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업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상생·협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수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 <제1635회 금요조찬 포럼>

### 인도네시아 바로보기 : 한국경제의 미래 관점에서

(최경희 교수)

1635회 금요조찬포럼은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를 초청하여 「인도네시아 바로보기: 한국의 미래전망 관점에서」을 주제로 2024년 기업경영환경과 국제정세, 투자유망국가 등을 이야기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한국과 수교한지 50년이 넘는 나라로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 한-아세안 연구대상의 핵심 협력대상국가로 한국을 좋아하는 인구 2억 7천만 명을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최근 한류 지수를 측정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인도네시아는 대중화 최고 발전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가 한국을 굉장히 친밀하게 느끼고 한국을 따라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한류에 투영 돼있습니다. 세계 인구 4위 국가가 한국을 가장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최대 현안은 수도이전입니다. 수도인 자카르타가 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잠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이전이 합의 됐습니다.

신수도 이전은 총 4단계로 1단계(20년~24년) 법 규정 마련 및 주요 인프라 구축, 2단계(25년~35년) 주요 경제인프라 구축 완료 및 중앙 행정부 구축, 3단계(36년~45년) 광역도시 구축 및 순환경제시행을 위한 네트워크마련 4단계(45년 이후) 세계 10대 도시 진입 인구 190만 이상 도시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함께할 국가로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에게도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시대적 화두속에서 가장 핫한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석탄, 철강, 팜유, 천연가스와 전기차 핵심 소재인 니켈 보유량 1위 국가로 과거에는 천연자원을 팔아 국가경제를 이끌어 갔다면 최근에는 천연자원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제조업 중심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경제질서 변화 속에서 양국의 협력관계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의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과 수도이전 이전이 한국에게 기회인 이유는 인도네시아란 나라가 한국과 협력하는걸 가장 좋아합니다. 일본처럼 침략하지 않았고, 중국처럼 독단적이지 않고, 미국처럼

멀리 있지도 않아서 한국기업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분들도 인도네시아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여행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정보를 빨리 얻어 사업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1. 경제 동향

### ◆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1.4)

- 정부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을 중점으로 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 [참고] 2024 경제정책방향

목표 : 활력있는 민생경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서민생활 안정</li> <li>■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li> <li>■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li> <li>■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PF 연착륙</li> <li>■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li> <li>■ 공급망 안정 확보</li> <li>■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li> </ul>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 생태계 강화</li> <li>■ 공정한 기회 보장</li> <li>■ 사회 이동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li> <li>■ 인구·기후 위기 대응</li> <li>■ 미래세대 기회 확대</li> </ul>

자료 :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24. 1. 4)

- (경제성장률 전망) 정부는 우리나라의 2024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

※ 지난 2023년 7월 전망치(2.4%) 대비 0.2%p 하향 조정

- (소비)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개선 제약이 예상되나 견조한 고용률, 점진적 물가 상승세 둔화, 코로나 이후 축적된 가계저축 등에 힘입어 1.8% 증가 전망.
- (투자) 설비투자는 IT업황 호전 본격화, 수출 회복 등으로 3.0% 증가 전망. 건설투자는 수주·착공감소, 고금리에 따른 건설사 자금조달 애로, 부동산 PF 리스크 등으로 1.2% 감소 전망.
- (수출) 수출은 글로벌 교역 확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2023년 △7.4%에서 2024년 8.5%로 반등할 전망.
- (고용) 2024년 취업자수는 '22~' 23년간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저영향 등으로 2023년(32만명)보다 증가 폭이 낮은 23만명 증가 전망
- (물가) 대내외 여건 개선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며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년 (3.6%)보다 낮은 2.6%로 전망

- (경상수지)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24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310억달러)보다 큰 500억달러로 예상

#### ◆ 통계청, 「2023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1.10)

- 2023년 취업자는 2,841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32만 7천명(1.2%) 증가
  - (산업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3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 4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명) 등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제조업(△4만 3천명), 도매 및 소매업(△3만 7천명), 부동산업(△1만 8천명) 등 취업자는 감소
  - (연령별) 60세 이상(36만 6천명), 50대(5만 9천명), 30대(5만 4천명)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20대 (△8만 2천명), 40대(△5만 4천명) 취업자는 감소
- 고용률(15세 이상)은 62.6%로 전년대비 0.5%p 상승
  - ※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대비 0.7%p 상승
- 실업자는 78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4만 6천명(△5.5%) 감소
  - 실업률은 2.7%로 전년대비 0.2%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5.9%로 전년대비 0.5%p 하락
- 전체 체감실업률\*은 9.0%로 전년대비 1.6%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16.6%로 전년대비 2.4%p 하락
  - ※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개념
-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3만 4천명(△0.8%) 감소했고, 이중 취업준비자는 67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8만 8천명 감소
  -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대비 7만 4천명 증가한 235만 1천명을 기록했고, 구직단념자는전년대비 8만 1천명 감소한 36만 2천명 기록

####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발표 (1.11)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 한국은행은 2022년 1월(1.25%), 4월(1.50%), 5월(1.75%), 7월(2.25%), 8월(2.50%), 10월(3.00%), 11월(3.25%) 일곱 차례, 2023년 1월(3.50%) 한 차례 인상하였으나,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어 2024년 1월까지 8개월 연속 동결 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24.1월)」 발표 (1.10)

- ※ 세계은행은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
- 세계은행은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전망(2.4%, '23.6월)과 동일한 2.4%로 전망하지 않음. (시장환율 기준)
  - ※ 해외 주요기관 '24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PPP 기준)
    - : [IMF] 2.9%('23.10월) [OECD] 2.7%('23.11월) [World Bank] 2.9%('24.1월)
  -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세계적인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22~'24년간 3년 연속 둔화, '25년에는 회복세 소폭 개선 전망
  - \*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시장환율 기준) : 6.2('21)→ 3.0('22)→ 2.6('23)→ 2.4('24)→ 2.7('25)
  - 물가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은 긍정적이나, 지정학적 긴장, 무역규제 강화, 중국경기둔화 등 하방요인이 아직 지배적
- 세계은행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대부분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
  - (선진국) 미국은 그간 소비에 따른 초과저축 축소, 높은 금리, 고용 둔화 등으로 소비·투자가 약화되며 2024년 1.6% 성장 전망. 유로존은 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며 2024년 0.7% 성장 전망
  - (신흥·개도국) 동아태 지역의 경우 중국 외 지역 성장률은 개선될 전망이나, 소비 감소, 자산부담 취약성 지속 등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2024년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경우 러·우 전쟁 영향으로 지역 전체 성장률은 '23년 2.7%에서 '24년 2.4%로 하락하고, 러·우외 성장률은 '23년 2.7%에서 '24년 3.1%로 상승.
- ※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23.6월 전망→ '24.1월 전망)
  - : [선진국] 1.2%→ 1.2%, [신흥개도국] 3.9%→ 3.9%

- 세계은행은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잠재성장을 하락 우려가 있으며 투자촉진,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

#### ◆ 한국은행, 「2023년 11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9)

- 2023년 11월 경상수지는 40.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2년 11월 2.2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 경상수지는 2023년 5월(19.3억달러 흑자) 이후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한국은행) : 37.4('23.7)→ 49.8(8)→ 54.2(9)→ 68.0(10)→ 40.6(11)
  - ※ 2023년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27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2년 1~11월 누적 경상수지(271.5억 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2.8억 달러 증가
  - 상품수지는 70.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2년 11월 9.5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 상품수지는 2023년 4월(5.8억달러 흑자) 이후 8개월 연속 흑자 기록
  - 서비스수지는 21.3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7.4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
    - ※ 서비스수지는 2022년 5월(1.5억달러 적자) 이후 19개월 연속 적자 기록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줄어든 반면 분기 배당지급이 크게 늘면서 1.5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2022년 11월 16.6억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 이전소득수지는 6.6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2022년 11월(1.5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
- 2023년 11월 금융계정은 20.2억달러 순자산 증가 기록



## 2. 노사 동향

### ◆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의제 선정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고용부는 1. 5「2024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노사에 사회적 대화 적극 동참을 통한 현안 해결 당부
  - ※ 주요 참석자 : 손경식 경총 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를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할 변화와 도전과제가 상존하는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고, 노사정이 함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
- 노사는 신년 인사회에서 노사정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공통적으로 언급했으나, 노사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 확인
  - 경총은 ① 직무가치·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②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등 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 반면, 한국노총은 저출산, 기후위기, 산업전환 등에 대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
- 한편,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의제 선정을 위한 부대표자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제 결정에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지난 1. 4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등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노사 자율의 영역이며, 정부의 사회적 대화 논의 의제 언급을 사회적 대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 [참고] 2024 경제정책방향

구분	주요 내용
임금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상반기)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중심 인사관리도입,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이중구조 개선대책」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노위 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구체화</li> <li>-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유도를 위해 재정 인센티브 신설 및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추진</li> <li>-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및 확산</li> </ul> </li> </ul>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상반기) 사회적 대화를 거쳐「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단위 및 상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li> </ul> </li> </ul>
------	--

###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

-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관련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은 1. 9 국회 본회의에 미상정
- 정부는 1. 9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미상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전까지 입법 처리 촉구
  - ※ 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조건으로 ① 법률 확대 적용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의 사과, ② 유예 기간 동안 안전확보 계획 제시, ③ 2년 유예 이후 법률을 시행한다는 정부·경제단체 등의 약속 제시
  - ※ 정부는 지난해 12. 27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1조 5천억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한다는 계획
    - 정부는 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건 충족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음을 강조
- 경제6단체는 1. 9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입장 표명
  - ※ 공동성명 참여 단체 :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경제6단체는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처사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